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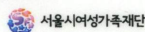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알았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전쟁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어느새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되어 버렸고 평화는 현실을 위해 유보해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이런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익일까요? 국기를 향한 맹세가 어느새 국익을 위해서라면 타민족, 타 국가, 힘없는 개인을 향한 죽음을 허락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전쟁과 폭력에도 명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 현실론을 지탱하는 군대와 군사주의 또한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성과 소수자는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 침투한 전쟁이 어떻게 '당연'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석순 25집은 '당연'의 세계에서 침묵해야 하는 목소리를 되살리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다시금 진짜 현실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이런 현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묘한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양쪽에서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웃팅 당하는 동성애자, 진보적 운동권에서 또 다른 억압을 견뎌 내야하는 여성 운동가, 국가의 필요를 명목으로 행해지기에 드러나기 어려운 공권력 속의 폭력, 수많은 낙태담론 속에서 죄책감으로 침묵해야 하는 여성들, 무시코 건 TV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의 이야기. ● 당연의 얼굴을 한 폭력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당연하지 않음을 단죄할 때, 사라져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 여성주의는 여성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여성주의가 여성우월주의라면 그것은 기존의 가부장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흔히 말해지는 여권은 여성주의가 아닙니다. 여권과 인권을 따로 나누는 이분법적 발상은 그동안 여성주의에 관한 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위를 넓혀나가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인권 개념은 여성과 소수자를 포괄하지 못했습니다. 한 수천년간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언어도 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언론 또한 종립적일 수 없습니다.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다면 언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려버렸는지요. 언어는 분명한 관점과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종립적인 언어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의 시선을 담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 석순은 그렇기에 여성과 소수자의 시선을 지향합니다.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14492



# 목차

## 여는글 004

전쟁 010 not in our name \_ 민경

032 낯은 평화 앞에서 \_ 우박아름

낙태 052 나는 여성의 이름으로 낙태를 말합니다. \_ 최김은영

이반 072 너도, 호모포비아다 \_ 천박형준

정치 098 여성, 타협을 넘어 이제 세력화로 \_ 최김은영

114 여성의 정치세력화, 17대 총선을 통해 되돌아보다 \_ 김윤은미

산부인과 128 보지와 산부인과의 짜릿한 만남 \_ 민경

154 여성과 의학, 괴담 내지 전망 \_ 수인

164 월경 사진글

나이들 172 ( )속 여성 \_ 성희

운동권 190 여성으로 운동한다는 것은 \_ 연빈

이주여성노동자 210 등잔 밑 기억 \_ 성진

공권력 234 나는, 경찰이 되고싶어요 \_ 성희

252 여성 재소자와 인권 \_ 유혜정

코미디 266 코미디, 블루블루블루 \_ 우박아름

24집 평가서 278 스물 다섯 번째 석순, 더 넓은 열림을 꿈꾸다 \_ 이이민서

281 석순, 우리 세계의 조커가 되어주기를 \_ 유연미

284 석순 24집 평가서 \_ 영천

24집 결산안  
편집후기